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6월 실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계획 발표 퇴원 노인 대상 의료·돌봄 통합지원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부터 병원에서 퇴원하는 의료급여수급자가 집에서 편안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2년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의 다양한 연계사업 중 하나로 선도사업 지역 중 4~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다.

급격한 고령화 추세 속에서 노인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살던 곳에서 의료·돌봄·주거 등 통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노인은 대부분 의료와 돌봄, 주거 등에 대한 복합적 욕구가 있으나, 기존에는 이에 대한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제공돼 실질적으로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돌봐줄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돌봄 여유가 없는 빈곤층은 원하지 않게 살던 곳을 떠나 병원이나 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의료급여수급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

해 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의료급여에서 재가서비스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모형을 추진하게 됐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재가 돌봄을 희망하나 거주공간을 마련하지 못한 어르신에게 매입임대주택을 제공해 안정적인 재가 생활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대상은 6개월 이상 병원 입원자 중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어 재가 생활이 가능한 수급자이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 의료급여관리사의 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의료·돌봄 통합 서비스를 받게 된다.

입원 중인 대상자는 의료급여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 퇴원 후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돌봄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퇴원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는 돌봄계획에 따라 의료, 이동지원, 돌봄, 식사지원 서비스를 필수급여로 받을 수 있고,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했으며, 주거개선, 냉난방 비용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담 의료기관을 연계해 의사·간호사·의료사회복지사·영양사로 구성된 지원팀이 실시간으로 의료·영양·외래 이용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 노인돌봄,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등 기존 서비스를 우선 연계·지원하되, 자격이 되지 않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면 보충적으로 의료급여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관리사는 급여 제공 이후에도 어르신들이 불편 없이 생활하는지 또는 추가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살펴봐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누리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임은정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내년에는 정신질환자 대상으로도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빈곤층 노인뿐 아니라 보편적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모형 개발과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올해 1월 10일 발표한 바 있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공모에 29개 기초자치단체가 신청했으며, 심사를 거쳐 4월 초에 최종 지역이 선정된다.

주혜진 기자 hjoo@koreanurse.or.kr

암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강화

보건복지부는 올해 암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주기에 걸친 암 관리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폐암검진을 국가 암검진에 추가해 조기검진을 강화하고 암 생존자를 위한 신체적·정신적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가 폐암검진은 암사망률 1위인 폐암의 조기진단과 사망률 감소를 위해 고위험 흡연군을 대상으로 도입된다. 이는 2017년부터 2년간 폐암검진 시

범사업을 시행해 검진 효과를 평가한 후 결정된 것이다.

중앙호스피스센터를 중심으로 권역센터를 확대 지정해 2018년 3곳에서 올해 8곳으로 늘린다. 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와 교육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시범사업기관을 2018년 2곳에서 올해 4곳으로 확대해 더 많은 환자와 가족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암 유병자 174만명 시대에 대응해 암생존자 통합지지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사업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중앙암생존자통합지원센터를 지정하고, 권역별 센터를 2018년 7곳에서 올해 11곳으로 늘린다. 소아청소년을 위한 암생존자 통합지지 시범사업기관(2곳)도 처음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분산돼 있는 암 관련 정보·자료(데이터)를 연계해 암 예방·치료법 연구 및 암 관리 정책 효과성을 높이는 등 암관리 기반(인프라)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규숙·이진숙 기자

결핵 신환자 절반이 65세 이상 사각지대 결핵예방관리 범부처 협력

지난해 결핵 신환자 2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제9회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지난 한 해 동안 국가결핵감시체계를 통해 분석한 '2018년 결핵환자 신고현황'을 발표했다.

신고현황에 따르면 2018년 결핵 신환자는 2만6433명으로 전년 대비 6.4% 감소했다. 2011년 최고치 이후 7년 연속 감소하는 추세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중 65세 이상 노인 환자 수는 1만2029명으로 전년 대비 2% 증가해 전체 결핵 신환자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45.5%에 달했다. 인구고령화 및 면역저하 기저질환 증가 등으로 노인 결핵환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외국인 환자 수는 1398명으로 전년 대비 14.3% 감소했고, 이 가운데 다제내성 결핵환자 비율은 6.3%로 내국인(2.1%)보다 높았다.

국내로 유입되는 장기체류 외국인 증가함에 따라 국내 체류기간

중 검진을 통한 외국인 결핵환자의 조기발견과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결핵 사망자 수는 줄고 있지만, 전염성 결핵 신환자 치료성 공률은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결핵 환자 복약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사례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2018~2022년)'에 따른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을 기반으로 범부처 협력 및 각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추가적인 결핵관리 강화대책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올해는 어르신, 외국인, 노숙인 및 사각지대에 대한 결핵예방관리를 위해 범부처가 함께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제9회 결핵예방의 날 행사를 '결핵 없는 사회, 건강한 국가' 주제로 3월 22일 개최해 결핵퇴치 다짐의 장을 마련했다.

주혜진 기자 hjoo@

민·관 합동 응급의료체계 개선 협의체 출범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민·관 합동 '응급의료체계 개선 협의체'를 3월 20일 출범시켰다.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사명을 계기로 높아진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관심을 반영해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협의체는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2018~2022년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담긴 정책방향을 토대로 주요 논의과제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현장이승단계' '병원단계' '응급의료기반' 등 실무분과를 운영해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

키로 했다. 현장이승분과는 지역 단위에서 중증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최적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방안을, 병원분과는 응급의료기관 종별 역할 분담 방안을 논의한다. 기반분과는 지역 간 응급의료 격차 해소 및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체계 구축, 응급의료 정책지원조직으로서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역할강화 방안 등을 다룬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의료서비스는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사회안전망인 만큼 국민 누구나 어느 곳에 살든지 최상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oo@

2019년도 제16회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9년도 제16회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의료법 제78조,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I. 응시분야: 가정, 감염관리, 노인, 마취, 산업, 아동, 응급, 임상, 정신, 종양, 중환자, 호스피스(총 12개 분야, 보전 제외)

II. 시험일정

구분	일정	비고
응시원서 접수	기간 2019. 05. 13(월) 10:00 ~ 2019. 05. 31(금) 18:00	• 1차 시험 면제자 및 외국전문간호사 자격자 응시자격 심사 접수지도 동일기간에 시험응시 원서접수 필요
	방법 온라인 접수만 가능함 (단, 외국전문간호사 자격자는 추가서류 우편접수 병행)	• 본인 홈페이지 하단 「자격시험응시」 클릭(www.kabone.or.kr)
서류심사 결과발표	일시 2019. 06. 14(금) 14:00 이후	• 본인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수험표 출력	기간 2019. 06. 14(금) 14:00 이후	※ 수험표: 개별 출력하여 지참
시험시행	1차 시험 일시 2019. 07. 14(일) 시험시간 10:30~13:00(150분) 장소 광남고등학교(서울시 광진구 소재) (http://www.gwang-nam.hs.kr)	• 2차 시험은 1차 시험 합격자, 면제자에 한하여 응시 가능 • 2차 시험 접수는 별도로 하지 않으며 응시수수료 납부도 동일함
	2차 시험 일시 2019. 08. 25(일) 시험시간 10:30~12:10(100분) 장소 미정(후후 공지)	• 주차 불가, 대중교통 이용
합격자 발표	1차 시험 일시 2019. 07. 26(금) 14:00 이후	• 본인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최종 일시 2019. 09. 06(금) 14:00 이후	• SMS 개별 통보(최종 합격자에 한함)

III. 응시자격

- 교육과정 수료(졸업)생: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과정에서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외국전문간호사 자격자: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호에 해당되는 자
- 1차 시험 면제자: 2018년도 제15회 전문간호사 1차 시험 합격자 중 2차 시험 불합격자, 미응시자

IV. 시험과목 및 방법: 한국간호교육평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V. 시험응시 방법

- 응시원서 접수
 - 기간: 2019. 05. 13(월) 10:00 ~ 05. 31(금) 18:00
 - 방법: 온라인 접수(우편 및 방문접수는 허용하지 않음)만 가능하며, 본인 홈페이지 하단 「자격시험응시」를 클릭한 후 접수 (단, 외국전문간호사 자격자는 추가서류 우편접수 병행)
- 접수확인: 본인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접수현황
- 제출서류: 한국간호교육평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서류심사 결과 및 수험표 확인
 - 본인 홈페이지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2019. 06. 14(금) 14:00 이후)
 - 수험표는 응시자가 개별 출력하여 시험 당일 지참
- 응시수수료
 - 납부방법: 계좌이체

구분	대상	응시수수료	납부기한	입금계좌
1차 시험	교육과정 수료(졸업)생	300,000원	2019. 05. 13(월) 10:00 ~ 05. 31(금) 18:00	신한은행 140-009-638383
	외국전문간호사 자격자 (응시자격 심사 수수료 포함)	330,000원		
2차 시험	1차 시험 합격자	300,000원	2019. 07. 29(월) 08:00 ~ 08. 09(금) 18:00	예금주: 재단법인 한국간호교육평가원
	1차 시험 면제자			

• 수수료 반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490호, 2017.03.28] 제9조에 의거

VI. 합격자 결정: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490호, 2017.03.28] 제10조제3항에 의거,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서 각각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

※ 문 의: 본인 홈페이지(www.kabone.or.kr)나 전화(1833-6230, ARS 3번), 이메일(apn@kabone.or.kr)

한국간호교육평가원장



래어달메디컬 기술지원 프로그램

구입하신 장비 상태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해 드립니다!



- 시뮬레이션 장비의 고장으로 인한 미작동과 장비 운영 기술은 시뮬레이션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우수한 교육 내용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고객의 장비를 최상의 상태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 검증된 기술지원서비스로 고객의 장비에 관한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고 계획된 관리 체계로 지속적인 환자 치료 교육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기술 지원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 5년** 시뮬레이터 보증 기간 연장
구매 후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 X** 소모품 교체 패키지
대부분의 주요 소모품(PM) 혹은 가장 빈번히 소모되는 제품 교체(PM Lite) 중 택 1 가능
- 24h** 최우선 전문 수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최우선 전문 수리(24시간 이내 방문)
- 무상** 장비 평가 시스템
무상 정기 점검 서비스 시스템 운영(년 2회)
- 무상** 대여 서비스
학기 중 장비 입고 수리 시 무상 대여 서비스
- 예산** 편성 계획표
지속적인 장비 관리를 위한 예산 편성 계획표 제출